

KDB DAEWOO DAILY

2013. 1. 8 (화)

코스피지수 (1/7)	2,011.25P(-0.69P)
코스닥지수 (1/7)	508.72P(+3.88P)
KOSPI200지수 3월물	268.20P(+0.10P)
중국상해종합지수 (1/7)	2,285.36P(+8.37P)
NIKKEI225지수 (1/7)	10,599.01P(-89.10P)
원/달러 환율	1,063.70(+0.10)
국고채 수익률 (3년)	2.76(+0.02)
유가(WTI) (1/7 18:33)	92.61(+0.16)
국내주식형수익증권(1/4)	682,408억원(-2,299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4)	260,484억원(-306억원)
고객예탁금(1/4)	180,317억원(-1,558억원)
신용잔고(1/4)	39,328억원(+189억원)

퀀트전략

지금은 반등스타일

선물옵션 분석

(선물의 눈) 외국인 주문 실수 이탈의 4대 시나리오

기업분석

SK하이닉스[매수] - 송중호: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 유효

현대건설[매수] - 송홍익: 실적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최고 건설사

대한통운[매수] - 류제현: CJ GLS와의 합병: 운수대통(運輸大通) 시대의 서막을 알리다

제이콘덴트리[Not Rated] - 박승현: 드라마 흥행에 따른 방송 사업 성장에 주목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지금은 반등스타일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기업들의 실적보다 향후 개선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PBR, Beta, EPS CV, 순부채비율 같은 스타일 변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각은 가격메리트, 하이베타, 높은 추정편차, 낮은 Quality를 나타내는 반등스타일 변수들로 과거 선행지수 반등 초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기업이익 전망 보다 뚜렷한 증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가지 반등스타일 변수들 중 PBR역수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가지 조합을 구성하면 최근 KOSPI 반등에 비해 훨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개선 초반에 기대감이 유지되는 한 반등스타일 상위 종목들의 긍정적 성과를 기대한다.

선행지수 개선 초기에 실적은 중요팩터가 아니다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1>과 같이 전통적으로 유사한 굴곡을 보인 원달러와 두바이 유가 증가율 차이는 선행지수 전년대비 증가율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지수 개선 초반에는 실적모멘텀 영향력 떨어져

경기개선 기대감은 높지만, 최근 기업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 2009년 초반 한국 선행지수 증가율이 반등할 때, 그리고 최근에도 <그림2>에서 보듯이 기업 이익개정비율(Earnings Revision) 상하위 종목들의 성과 차이는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시에서 실적모멘텀의 영향력이 낮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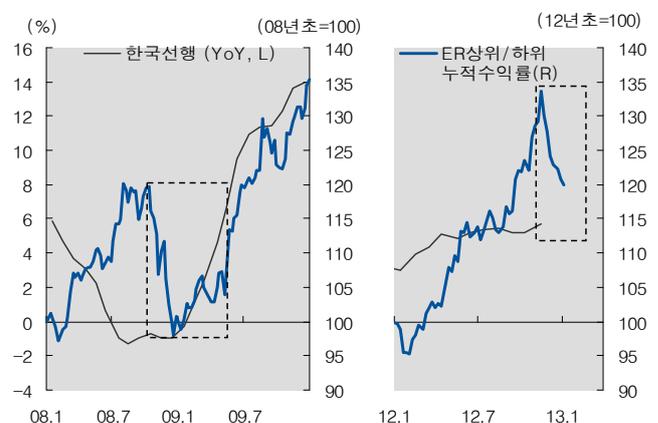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반등 초반에는 실적보다는 향후 개선되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 한국 선행지수 증가율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예전에도 지금도 선행지수 증가율 반등 초기는 실적전망 무의미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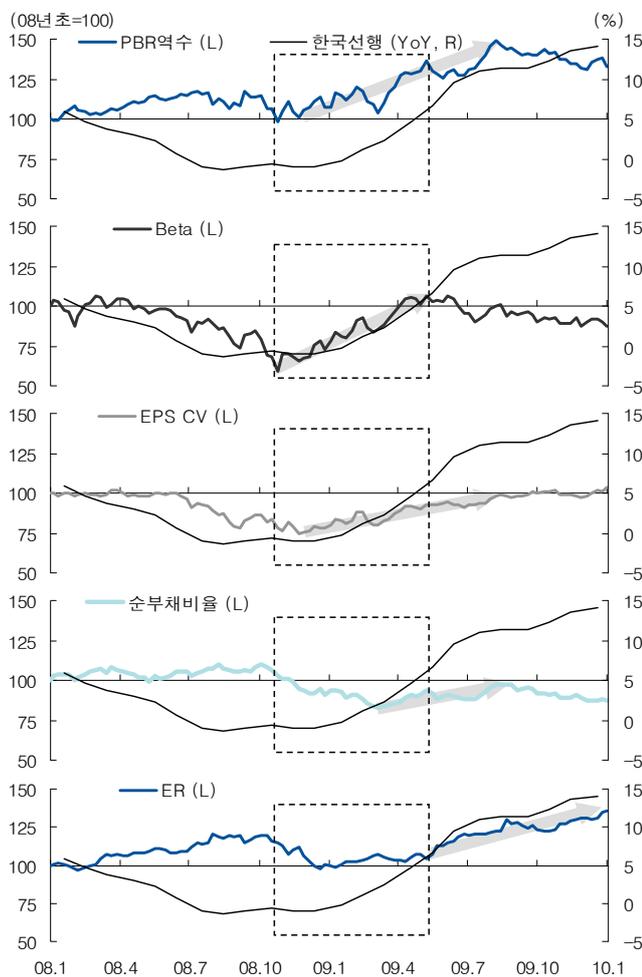
반등스타일은 가격메리트, 하이베타, 높은 추정편차, 낮은 Quality

경기개선 기대감 높은 시기에
PBR, Beta, EPS CV,
순부채비율 주목

경기반등 기대감이 높은 시기에 실적 대신 증시에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PBR, Beta, EPS CV, 순부채비율 같은 스타일 변수들이다.

PBR이 낮은 종목들은 절대 가격메리트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경기가 반등할 때는 가격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의 성과가 가파르게 개선되곤 했다. <그림3>에서 보듯이 PBR역수 상하위 종목들의 성과 차이는 한국 선행지수 증가율이 바닥을 다진 2008년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했었다.

그림 3. 직전 선행지수 증가율 반등시기였던 2009년 초반에 실적전망보다 PBR역수, Beta, EPS CV, 순부채비율의 증시 영향력이 더 컸음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경기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증시에 대한 종목들의 민감도를 나타낸 Beta 역시 상하위 종목들의 성과 차이가 선행지수 증가율 반등 초기에 뚜렷한 우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PS CV(EPS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주당 기업이익의 전망치들의 편차를 시장 컨센서스 값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이익 전망치에 대한 의견의 서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경기반등 기대감이 높을 때는 기업이익의 전망치의 편차가 커서 좀 불확실하더라도 오히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해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EPS CV 상하위 종목들의 성과 차이는 <그림3>의 세번째 그래프에서 2008년 후반부터 꾸준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데 경기가 부진할 때는 위험회피에 대한 성향으로 부도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이 양호한 성과를 보이지만, 경기회복 시기에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나온 성과를 보인다. 전대미문의 글로벌위기로 다른 변수들보다 늦게 반응했지만, 2009년 초반부터 상하위 성과 차이가 우상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익개선비율(ER) 상하위 종목들의 성과 차이는 선행지수 증가율이 완전히 돌아선 2009년 5월부터 본격적인 우상향을 보였다. 2008년 중반까지도 증시에서 잘 작용하는 변수였지만, 이후 글로벌위기를 겪으면서 영향력이 떨어졌다가 앞의 4개 변수들보다 늦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항상 변한다. 변화하는 시장에 작동하는 변수들도 항상 변한다. 장기적으로 잘 작동하던 변수들이라도 단기적으로 증시 상황에 따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시기에 잘 맞는 변수들도 있다. 경기개선 기대감이 높을 때에 증시반등 기대감과 함께 잘 작동하는 가격메리트, 하이베타, 높은 추정편차, 낮은 Quality는 반등스타일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반등스타일 변수들의 영향력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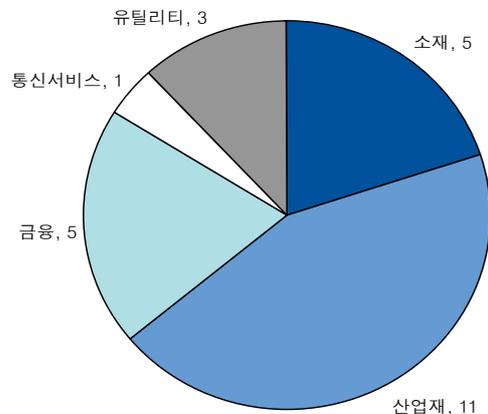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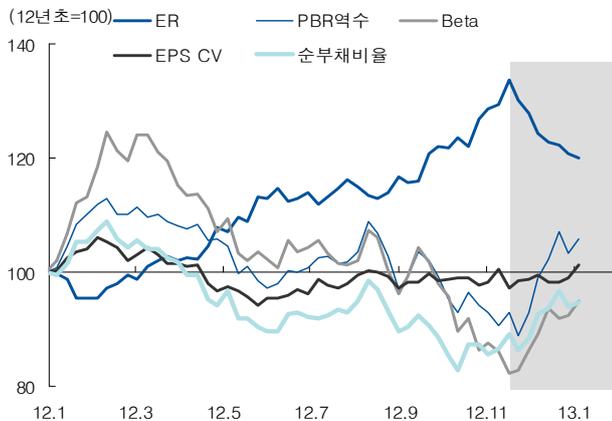
반등스타일 최근 성과와 세가지 유형으로 조합

최근 반등스타일 변수들의 상위 성과 차이는 2009년 초반과 같이 다시 개선되고 있다. 반면, 기업이익 개정비율인 ER은 <그림4>와 같이 아직 상위 종목들 보다 하위 종목들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반등스타일의 상위에 속하는 종목들은 <그림5>와 같이 주로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 최근에도 반등스타일 변수들의 영향력은 뚜렷해지고 있음

그림 5. 반등스타일 종목들의 섹터 구성: 소재와 산업재, 금융이 절대적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확인한 네가지 반등스타일 변수들 중 PBR역수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가지 조합을 구성해 성과를 체크하였다. PBR역수를 제외한 세가지는 각각 성격이 달라서 서로 겹쳐서 보기는 좀 맞지 않아 보인다.

세가지 반등스타일 성과 양호

PBR역수 상위 종목들과 세가지 변수들의 상위에 속하는 종목들로 바스켓을 구성해 성과를 보면, <그림6>과 같이 최근 KOSPI 반등에 비해 훨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PBR역수 상위 종목과 각 스타일 상위 종목들의 성과 추이: 작년 11월 후반부터 뚜렷한 반등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반등스타일에 속하는 종목들

앞에서 확인한대로 PBR역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 Beta, EPS CV, 순부채비율 각각의 상위 종목들을 정리한 것이 <표1>이다.

경기의 흐름과 증시의 추세가 방향성을 잡는다면 증시는 다시 이익모멘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경기개선 초반에 기대감이 유지되는 시기에는 가격메리트, 하이베타, 높은 추정편차, 낮은 Quality 같은 반등스타일이 당분간 양호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반등스타일과 해당 유형 상위종목들

(단위: 원, 배, %,)

종목번호	종목명	업종	당사 투자의견	당사 목표가	전일 종가	2013 PBR	52주 베타	EPS CV	순부채비율	PBR역수 & 52주 베타	PBR역수 & EPS CV	PBR역수 & 순부채비율
A000210	대림산업	건설	매수	120,000	89,700	0.66	1.80	0.10	-0.6	0		
A001430	세아베스틸	철강금속			27,300	0.67	1.49	0.15	22.1	0		
A005940	우리투자증권	증권			12,250	0.73	1.82	0.10	0.0	0		
A037620	미래에셋증권	증권	중립		38,250	0.72	1.59	0.13	0.0	0		
A053000	우리금융	은행			12,200	0.47	1.98	0.12	0.0	0		
A086790	하나금융지주	은행	매수	52,300	36,800	0.48	1.70	0.11	0.0	0		
A001230	동국제강	철강금속	중립		14,300	0.34	1.51	-3.87	154.4	0		0
A004020	현대제철	철강금속	매수	110,000	88,200	0.71	1.55	0.16	88.8	0		0
A028670	STX팬오션	운송	매수	5,000	4,450	0.48	2.98	-1.67	228.8	0		0
A003450	현대증권	증권	중립		9,140	0.64	1.81	0.21	0.0	0	0	
A006360	GS건설	건설	매수	77,000	57,600	0.70	1.90	0.19	3.6	0	0	
A009540	현대중공업	기계조선	매수	280,000	241,500	0.77	1.53	0.24	37.1	0	0	
A010620	현대미포조선	기계조선	매수	148,000	126,500	0.70	1.79	0.20	-7.5	0	0	
A012630	현대산업	건설	중립		22,600	0.65	1.42	0.22	54.2	0	0	
A000150	두산	복합	매수	172,000	132,500	0.80	1.19	0.28	22.9		0	
A104700	한국철강	철강금속			28,900	0.37	1.12	0.20	-19.4		0	
A000880	한화	복합	매수	42,000	34,700	0.46	1.23	0.19	62.7		0	0
A001740	SK네트웍스	무역			8,630	0.64	1.25	0.20	64.7		0	0
A004800	효성	복합			73,400	0.75	1.40	0.19	209.9		0	0
A009830	한화케미칼	화학	중립		19,600	0.66	1.31	0.53	86.0		0	0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30,800	0.37	0.07	0.87	106.4		0	0
A036460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75,100	0.60	0.03	0.19	319.5		0	0
A030200	KT	통신서비스			36,800	0.67	-0.22	0.10	62.1			0
A071320	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78,400	0.56	0.21	0.17	149.2			0
A097230	한진중공업	기계조선	Trading Buy	16,200	12,600	0.34	1.35	-1.90	170.6			0

주: 전일종가는 1월 7일 기준, 당사 투자의견 없는 종목은 당사 커버리지 아닌 종목임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의 눈) 외국인 주문 실수 이탈의 4대 시나리오

전일 후반 외인의 지정가 신규매수 주문 폭증. 증권, 투신이 신규매도로 이를 체결. DMA를 경유한 알고리즘 매매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주문 실수 유력. 규모는 '최대' 34,006계약(4조 5,182억 원). 단, 과거 시장가 주문 실수와 달리 지정가 주문 실수여서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음. 향후 청산 시나리오는 1) 지정가 전매 분할 청산, 2) 현물 or 합성선물 순 매수를 이용한 가격 부양 후 분할 청산, 3) 인버스 ETF 혹은 합성선물을 이용한 헤지 후 분할 청산, 4) 증권과 블록 매매를 통한 청산 등이 있음

전일 후반 외인 지정가 신규매수 주문 폭증. 증권, 투신이 이를 체결 시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전일 14:05부터 3월물 매수 호가 268.20p의 매수 잔량과 매수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폭증했다. 때문에 선물가격은 부근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였으며, 기중에 거래량은 +71,308계약 집중, 미결제는 +12,538계약이나 급증했다.

해당 시간의 주체 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은 +7,906계약을 집중 순 매수한 반면, 투신과 증권은 각각 -1,067계약, -3,842계약을 순 매도했다. 즉, 기중 미결제 급증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대량 지정가 신규매수 주문'을 투신과 증권 등의 신규매도가 받아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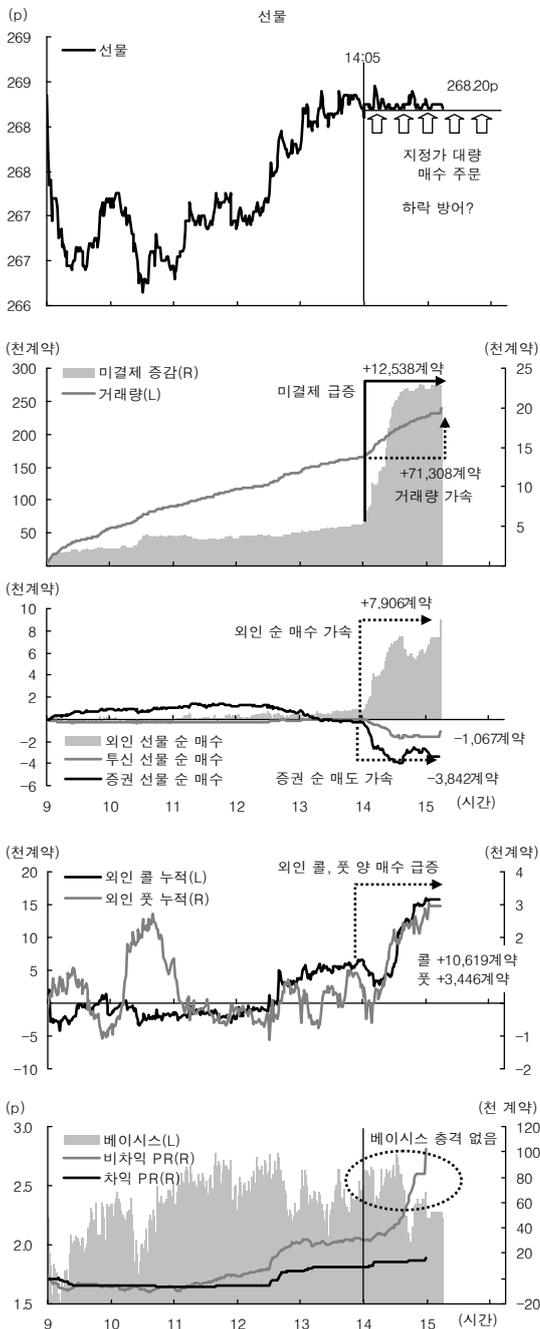
다만, 동 기간에 현물 지수 역시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베이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차익 PR 매매 역시 잠잠했다. 외국인의 비차익 PR 순 매수가 활발했지만 선물과의 상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옵션 쪽 외국인은 콜과 풋의 양 매수가 급증하는 모습이었다.

대량 단일 지정가 주문은 일부 외인의 주문 실수. 단, 미스터리는 남아

목적은 뭘까? 진실은 당사자만 알겠지만 일단은 '주문 실수'가 유력하다(홍콩 외국인과 K증권사). 매수 잔량뿐만 아니라 매수 건수가 선형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DMA(Direct Market Access)를 경유한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Trading)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단, 이러한 매매 방법은 현/선물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뒤따르는 주문 취소가 미진했던 점은 의문이다. 물론 이후 호가 잔량이 다소 줄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취소되지 않고 증가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곧 다소간의 '의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문제는 주문 실수에 따라 과잉 체결된 매수 위치선의 처리 방안이다. 이 물량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동 시간에 268.20p에 체결된 외국인 매수 주문만 하더라도 34,006계약, 금액으로는 4조 5,182억 원에 달한다. 현금 증거금만 하더라도 2,259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 시장가 주문 실수는 손익이 즉각 실현된 반면, 이번 지정가 주문 실수는 아직 손익 없어

과거 시장가 주문 실수와 달리 지정가 주문 실수여서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번 주문 실수가 과거와 다른 점은 ‘시장가’가 아니라 ‘지정가’라는 점이다(이는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시장가 주문 실수는 대량 매수나 매도 주문에 따라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했다가 이내 제자리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주문 실수에 따른 손익 역시 즉각 실현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지정가 주문이었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은 없었다. 즉, 아직 해당 외국인은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은 셈이며, 이를 체결시킨 증권이나 투신 역시 수익이 없는 상태다. 즉, 금일 시장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외국인의 청산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정가 분할 매도. 여하간 베이스스 하락 압력은 불가피

시나리오(1): 지정가 전매 분할 청산-상대적 선물 상승 둔화-산발적 PR 순 매도 출회

시장 일각에서는 당장 금일 시가부터 시장가 전매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최대 3.4만 계약의 매수 포지션을 시장가로 매도한다면 ‘베이스스 급락-PR 순 매도 폭발-지수 하락’의 충격이 반복되면서 손실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당장 증거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바람직한 청산 방법은 재차 호가 별로 주문을 분할하여 깔아두는 것이다. 다만, **여하간 선물의 상승 탄력은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므로 베이스스 하락 압력은 다소나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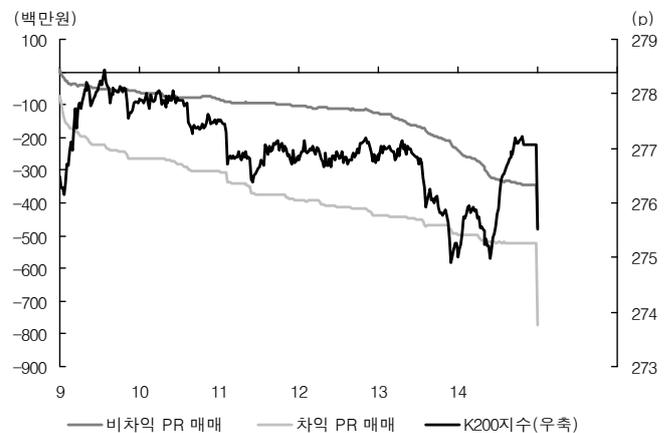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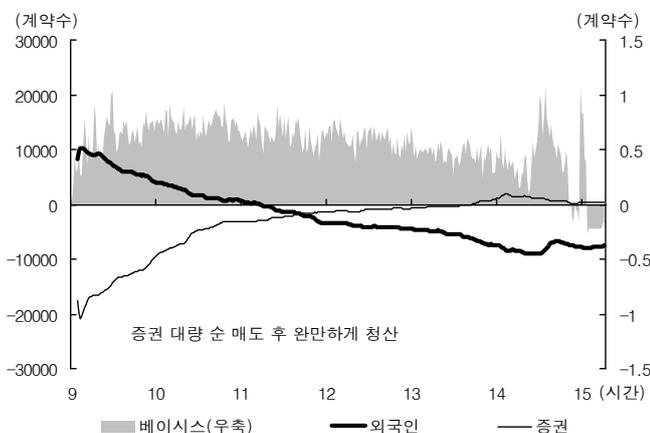
오히려 현물이나 합성선물을 순 매수해 가격 부양. 단, 상승 확신과 자금력 충분해야 가능

시나리오(2): 현물 or 합성선물 등의 순 매수를 이용한 가격 부양 후 분할 청산

이는 현물시장 참가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다. 즉, 당장 지수가 하락한다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현/선물 가격의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거나 나아가서는 부양할 것이란 얘기다. 향후 지수와 선물이 충분히 상승하면 이후부터 최대한 충격을 억제하면서 분할 전매에 나설 것이다. 전일 미진했던 주문 취소 역시 방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림 1. 2011년 1월 만기일 증권 주문 실수. 대량 매도 후 완만 청산

그림 2. 2011년 1월 만기일 충격은 증권이 아니라 외인 PR 순 매도



주: 장 중 1분 데이터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주: 장 중 1분 데이터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이는 해당 외국인이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지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시나리오(3): 인버스 ETF 대량 순 매수 혹은 합성선물 대량 매도를 이용한 헤지 후 분할 청산

다른 수단으로 헤지 후 분할 청산. 직접 충격은 피하겠지만 간접 충격은 불가피

당장 선물 매수 포지션을 대량 매도한다면 직접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이를 헤지(hedge)한 다음(혹은 동시에)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적합한 수단은 ① 인버스 ETF의 대량 매수나 ② 합성선물 대량 매도 등이다.

물론, 이들을 대량 매매할 경우, 차익거래에 의해 선물에도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지만 직접적인 매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시나리오(4): 증권과 블록 매매를 통한 청산. 시장 충격 최소화(야간 선물)

최상의 시나리오? 만일 증권사가 해당 주문을 받았다면? 향후 블록 매매로 청산

주문 건수가 과다하여 전량 취소에 실패했을 때 외국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법은 일단 해당 증권사가 이 주문을 모두 받았다가 향후 조용한 시기(?)에 '블록 매매'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다. 야간 선물시장도 좋은 대안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별다른 시장 충격 없이 외국인의 과잉 매수 주문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가 과연 3.4만 계약의 신규매도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문이 DMA였으며 증권사에 면책 사항이었다면 과연 증권사가 이를 실행했을 지는 의문이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증거금 여력 있다면 급격한 움직임 삼가하고 '집수함 전략' 구사할 것

변수는 향후 지수 방향과 외국인의 증거금 여력

결국 변수는 향후 지수 방향과 외국인의 자본력 등 2가지다. 지수가 상승한다면 완만한 속도로 전매에 나설 것이며,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증거금 여력만 충분하다면 급격한 전매를 삼가하여 충격을 억제할 것이다. 다만, 여하간 선물의 상대적인 상승 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스 하락에 따른 PR 순 매도 가능성은 다소나마 높아진다.

지난 2011년 1월 옵션 만기일에도 증권이 장 초반에 주문 실수로 옵션 대신에 선물을 2만 계약이나 시장가로 매도한 바 있다(1월 옵션 만기는 트레이더의 무덤인가?). 이후 이들은 완만한 속도로 청산을 거듭했는데, 초반 지수가 급등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내 지수는 반락했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그림 1, 2 참조>.

SK하이닉스 (000660)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 유효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33,000
현재주가(13/01/07,원)	25,900
상승여력(%)	27.4
EPS 성장률(13F,%)	흑전
MKT EPS 성장률(13F,%)	19.9
P/E(13F,x)	16.2
MKT P/E(13F,x)	9.0
KOSPI	2,011.25
시가총액(십억원)	17,979
발행주식수(백만주)	694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4,604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6
배당수익률(13F,%)	0.0
유동주식비율(%)	74.2
52주 최저가(원)	20,100
52주 최고가(원)	30,950
베타(12M,일간수익률)	1.51
주가변동성(12M daily,%,SD)	2.4
외국인 보유비중(%)	25.3

주요주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외 4인(25.82%)
국민연금관리공단(8.0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0	7.9	6.2
상대주가	-2.8	-0.3	-3.0

주요사업

DRAM과 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및 판매

What's New?: 4Q12 실적 개선은 예상보다 완만

SK하이닉스의 4Q12 실적은 매출액 2.7조원(+9.6% QoQ, +4.0% YoY), 영업이익 822억원 (QoQ, YoY 흑자전환)으로 예상되어, 기존 실적 추정치(영업이익 1,458억원) 대비 실적 개선세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1) 모바일 DRAM 비중 확대(DRAM 매출의 40%), 2) DRAM 38나노, NAND 20나노 비중 확대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1) 4분기 말 추가적인 환율 하락, 2) PC DRAM 관련 손실 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분기 DRAM 부문 영업이익률은 BEP 수준, NAND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한 자릿 수로 추정된다. 특히 DRAM 부문의 수익성 부진은 Commodity DRAM 적자에 따른 것인데, 올 상반기 가격 상승에 따라 DRAM의 적자 요인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2Gb DDR3 고정가격은 0.83달러이나, 현물가격은 1.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Catalysts: 모바일 DRAM 비중 확대와 SSD 경쟁력 개선

올 상반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의 방향성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1Q13과 2Q13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1,539억원, 3,160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DRAM, MCP(Multi Chip Packaging) 등의 지속적인 비중 확대에 따라,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DRAM 실적의 Key factor는 모바일 DRAM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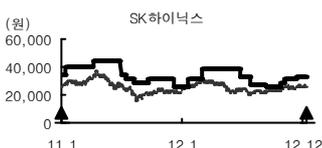
한편 최근 NAND 수요 성장에 있어서는 SSD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는 2012년 하반기에 자체 SSD 제품을 출시하였고, 미국 컨트롤러업체인 LAMD를 인수하는 등 SSD 경쟁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NAND 부문의 영업이익에서도 점차 규모의 경제가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Valuation: 2Q13 이후 본격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예상

2013년 실적은 매출액 12.5조원(+23.6% YoY), 영업이익의 1.4조원(YoY 흑자전환)으로 예상된다. 1Q13까지 실적 회복세는 다소 완만하겠지만, 2Q13 이후에는 분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3분기에는 1) 의외의 공급 감소에 따른 PC DRAM 가격 상승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12,106	2,975	24.6	2,621	4,440	6,151	2,749	39.2	5.4	1.9	3.0
12/11	10,396	326	3.1	-57	-96	3,572	-1,126	-0.7	-	1.8	5.2
12/12F	10,099	-170	-1.7	-230	-332	3,068	-469	-2.6	-	2.0	7.2
12/13F	12,486	1,400	11.2	1,111	1,601	5,024	1,639	10.7	16.2	1.8	4.2
12/14F	14,364	1,994	13.9	1,677	2,417	5,677	2,065	14.4	10.7	1.6	3.3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SK하이닉스: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SK하이닉스: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이건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 2) SSD 리테일 수요 급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3,000원(2013년 예상 P/B 2.23배)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 Valuation은 2013년 예상 P/B 1.8배 수준으로 아직까지 지나치게 고평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과 2014년 예상 ROE는 각각 10.7%, 14.4%로, 턴어라운드 이후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표 1. SK하이닉스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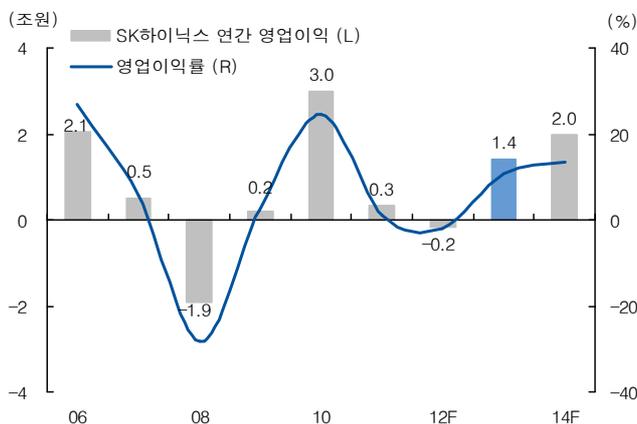
(십억원, %)

	1Q12	2Q12	3Q12	4Q12F	1Q13F	2Q13F	3Q13F	4Q13F	2011	2012F	2013F	2014F
매출액	2,388	2,632	2,423	2,655	2,755	3,038	3,318	3,374	10,396	10,098	12,486	14,364
%QoQ	-6.5	10.2	-7.9	9.6	3.7	10.3	9.2	1.7				
%YoY	-14.5	-4.6	5.8	4.0	15.4	15.4	36.9	27.1	-14.1	-2.9	23.6	15.0
DRAM	1,695	1,974	1,696	1,814	1,889	2,054	2,169	2,176	7,418	7,180	8,288	9,117
NAND	693	658	703	842	866	984	1,149	1,198	2,978	2,919	4,198	5,247
매출원가	2,182	2,159	2,021	2,088	2,141	2,263	2,351	2,401	8,721	8,460	9,345	10,430
매출총이익	206	473	402	567	614	776	967	973	1,675	1,638	3,140	3,934
판매비	473	472	432	470	470	480	500	540	1,570	1,837	1,800	2,000
영업이익	-260	23	-15	82	154	316	497	433	326	-170	1,400	1,994
% QoQ	적지	흑전	적전	흑전	흑전	105.2	57.5	-12.9				
% YoY	적전	-94.9	적지	흑전	흑전	1273.4	흑전	426.9	-89.0	적전	흑전	42.4
DRAM	-286	98	-11	28	72	201	302	306	-284	-170	882	1,094
NAND	19	-123	-19	69	72	95	165	127	389	-54	459	840
EBITDA	572	771	760	921	1,115	1,224	1,410	1,276	3,572	3,068	5,024	5,667
순이익	-271	-53	2	92	92	261	354	405	-57	-230	1,111	1,677
매출총이익률	8.6	18.0	16.6	21.4	22.3	25.5	29.2	28.8	16.1	16.2	25.2	27.4
영업이익률	-10.9	0.9	-0.6	3.1	5.6	10.4	15.0	12.8	3.1	-1.7	11.2	13.9
DRAM	-16.9	5.0	-0.7	1.6	3.8	9.8	13.9	14.1	-3.8	-2.4	10.6	12.0
NAND	2.7	-18.6	-2.6	8.2	8.3	9.6	14.4	10.6	13.1	-1.8	10.9	16.0
EBITDA 이익률	23.9	29.3	31.3	34.7	40.5	40.3	42.5	37.8	34.4	30.4	40.2	39.5
순이익률	-11.4	-2.0	0.1	3.5	3.3	8.6	10.7	12.0	-0.5	-2.3	8.9	11.7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그림 1.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그림 2. SK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현대건설 (000720)

실적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최고 건설사!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90,000
현재주가(13/01/07,원)	73,200
상승여력(%)	23.0
EPS 성장률(13F,%)	20.9
MKT EPS 성장률(13F,%)	19.9
P/E(13F,x)	11.9
MKT P/E(13F,x)	9.0
KOSPI	2,011.25
시가총액(십억원)	8,151
발행주식수(백만주)	111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470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1
배당수익률(13F,%)	1.1
유동주식비율(%)	65.1
52주 최저가(원)	55,600
52주 최고가(원)	87,500
베타(12M,일간수익률)	1.43
주가변동성(12M daily,%,SD)	2.1
외국인 보유비중(%)	23.0
주요주주	
현대자동차(주) 외 3인(34.91%)	
국민연금관리공단(9.03%)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8	9.9	2.5
상대주가	3.0	1.7	-6.6

주요사업
국내 및 해외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건설사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0,000원 유지

현대건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는 90,000원을 유지한다. 2011년 현대차그룹이 동사를 인수한 이후 동사는 원가관리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이익률 개선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4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동사의 연결기준 신규수주는 21조원으로 현대건설 15.8조원(국내 4.8조원, 해외 11.0조원), 현대엔지니어링 4.8조원, 사우디 현지법인 4,000억원으로 동사의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수주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는 베네주엘라 Puerto La Cruz 정유 프로젝트(13.5억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지역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남미, CIS(독립국가연합)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 확대를 통해서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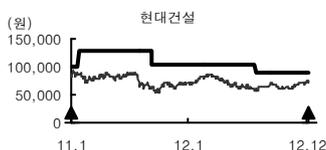
4Q Preview: 매출액 4.0조원(YoY +5.7%), 영업이익 2,344억원(YoY +53.5%)

2012년 4분기 동사의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211억원(YoY + 5.7%), 영업이익은 2,344억원(YoY + 53.5%, 영업이익률 5.8%), 당기순이익 1,885억원(YoY + 55.8%, 순이익률 4.7%)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사는 4분기에 영종도 힐스테이트 재고평가 손실 300억원, UAE 보르주 프로젝트 원가정산 600억원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손실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5.8% 내외의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11,378	723	6.4	513	4,604	862	268	15.0	15.7	2.1	8.6
12/11	11,920	754	6.3	635	5,701	812	-196	15.8	12.4	1.9	9.3
12/12F	13,227	773	5.9	566	5,074	792	10	12.7	13.8	1.7	9.6
12/13F	14,245	907	6.4	684	6,134	943	567	13.7	11.9	1.6	8.0
12/14F	16,258	1,110	6.8	859	7,709	1,144	558	15.2	9.5	1.4	6.2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현대건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현대건설: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현대건설: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중독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9,07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할 전망**

2013년 매출액 14.2조원(YoY +7.7%), 영업이익 9,070억원(YoY +17.3%) 전망

올해 동사의 매출액은 14.2조원(YoY + 7.7%), 영업이익 9,070억원(YoY + 17.3%), 영업 이익률 6.4%(YoY + 0.5%p)로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동사는 작년까지 해외 프로젝트 원가상승과 국내 준공 아파트 재고평가 손실을 반영했고 올해는 미착공 PF 충당금을 선반영할 예정임에도 6.4%의 영업이익률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동사의 해외수주 목표치는 110억불 내외로 예상되며 중동 35%, 아시아 30%, 중남미 25%, 기타 10% 등 지역다각화에 집중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결국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중동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피해서 마진율도 확보 하겠다는 전략이다.

표 1. 현대건설 4분기 예상 실적

(십억원, %)

	4Q11	3Q12	4Q12(F)		증감률	
			KDB Daewoo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3,803	3,319	4,021	4,068	5.7	21.2
영업이익	153	219	234	226	53.5	6.8
영업이익률	4.0	6.6	5.8	5.6	-	-
세전이익	156	219	229	238	46.8	4.6
당기순이익	121	157	189	170	55.8	20.4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현대건설, FnGuid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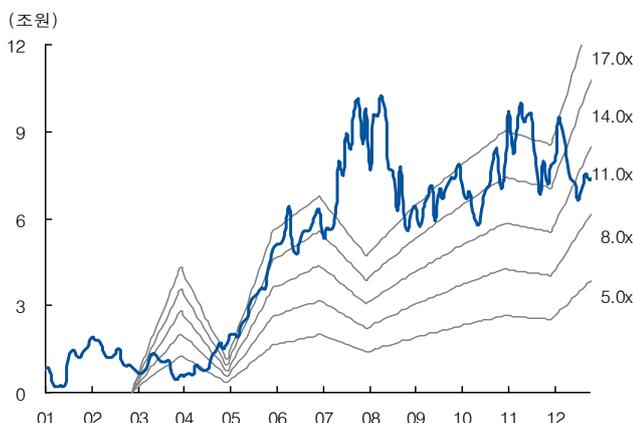
표 2. 현대건설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2011				2012F				4Q12 증감률		2011	2012F	2013F
	1Q	2Q	3Q	4Q	1Q	2Q	3Q	4QF	QoQ	YoY			
매출액	2,286	2,870	2,962	3,803	2,706	3,181	3,319	4,021	21.2	5.7	11,920	13,227	14,245
영업이익	143	188	271	153	153	167	219	234	6.8	53.5	754	773	907
세전이익	149	248	298	156	161	164	219	229	4.6	46.8	851	773	945
당기순이익	121	173	220	121	116	105	157	189	20.4	55.8	635	566	684
영업이익률(%)	6.2	6.5	9.1	4.0	5.7	5.2	6.6	5.8			6.3	5.8	6.4
순이익률(%)	5.3	6.0	7.4	3.2	4.3	3.3	5.2	4.7			5.3	4.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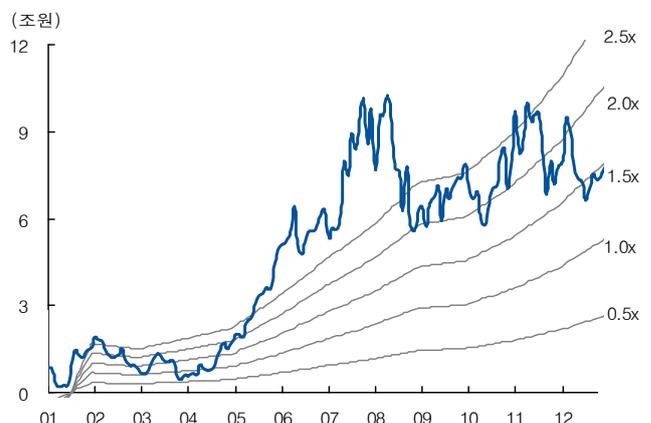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현대건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현대건설 PER 밴드차트 추이



자료: 현대건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현대건설 PBR 밴드차트 추이



자료: 현대건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J대한통운 (000120)

CJ GLS와의 합병: 운수대통(運輸大通) 시대의 서막을 알리다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150,000
현재주가(13/01/07,원)	107,500
상승여력(%)	39.5
EPS 성장률(13F,%)	24.3
MKT EPS 성장률(13F,%)	19.9
P/E(13F,x)	19.4
MKT P/E(13F,x)	9.0
KOSPI	2,011.25
시가총액(십억원)	2,452
발행주식수(백만주)	23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72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
배당수익률(13F,%)	0.0
유동주식비율(%)	36.1
52주 최저가(원)	62,100
52주 최고가(원)	122,000
베타(12M,일간수익률)	0.71
주가변동성(12M daily,%,SD)	2.3
외국인 보유비중(%)	3.3

주요주주
 CJ제일제당 외 2인(40.17%)
 CJ대한통운 자사주(23.77%)
 아시아나항공(주) 외 1인(10.32%)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9	29.2	27.4
상대주가	-1.8	21.0	18.3

주요사업
 국내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서 TPL, 해운, 택배, 포워딩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보유함.

CJ대한통운, CJ GLS와의 합병 발표: 기존 주주에게는 이상적인 시나리오

CJ대한통운은 CJ GLS와의 합병을 발표하였다. 합병 기일은 4월 1일이며, 합병 방식은 지주회사인 CJ GLS를 역합병을 통해 인수하고 CJ주에게 대한통운의 기존 자사주 중 일부(23.8% 중 20.1%) 및 현금(339억원)을 매입대금으로 지불하는 "Share Swap을 통한 역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비율은 1:0.333으로 CJ대한통운 주식 1주당 CJ GLS 3주의 가치가 산정된 것이다. 2011년 실적 기준으로 합병비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그동안 리스크로 판단되었던 CJ GLS의 가치산정 고평가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합병은 주주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1) 발행주식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CJ GLS의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2) 또한 그동안 논란이 예상되었던 지분을 변동에 따른 지주사법 위반 가능성도 비껴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마지막으로 매각시한을 넘겼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보유 자사주의 처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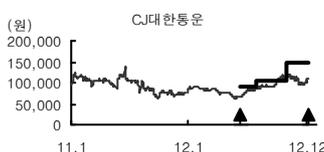
CJ대한통운은 순자산가치 6,471억원(조정 후 가치 6,773억원)인 CJ GLS의 실적을 흡수하게 되면서 2013년 예상 실적 기준(2013년 온기 실적 반영 가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5%, 17.8%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기에는 본격적인 합병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 1) 통합택배 운영효과, 2) 해외사업 확대, 3) CJ 그룹 물량 추가 등에 따른 실적 추가 업사이드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주가 15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CJ GLS는 2012년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 3,188억원, 순이익 190억원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2012년 매출액 1조 6,000억원, 순이익 23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2013년 CJ대한통운의 손익에는 매출 1조 1,000억원 이상, 순이익 190억원이 추가 계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 삼성 관련 물량이 모두 계상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자체 성장성도 반영하지 않은 관점에서의 예상치이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2,464	174	7.1	98	4,300	213	-247	4.9	21.9	1.1	15.0
12/11	2,588	123	4.7	85	3,703	199	-165	3.9	20.3	0.8	12.1
12/12F	2,817	156	5.5	102	4,467	212	-81	4.5	22.5	1.1	14.3
12/13F	3,231	206	6.4	127	5,550	251	7	5.3	19.4	1.1	12.8
12/14F	3,787	253	6.7	155	6,781	301	25	6.1	15.9	1.1	10.8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CJ대한통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의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2013년 및 2014년 EPS는 각각 14.9%, 19.9%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 이러한 요인을 실적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장기적으로 CJ대한통운은 향후 합병으로 인해 1) **자산회전을 증가**, 2)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외형 확대**, 3) **마진 개선**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요인이 반영될 경우 향후 목표주가의 추가 상승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한다.

승자독식, 운수대통(運輸大通)의 시대는 이제 시작

물류산업은 길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병으로 택배산업 1위업체인 CJ대한통운은 시장점유율이 40%에 육박하면서 2nd tier와의 격차를 30% 가까이 벌리게 되었고, 2014년 수도권 터미널 완공과 함께 완벽한 독주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제3자 물류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낮은 경제성장률 속에서도 꾸준한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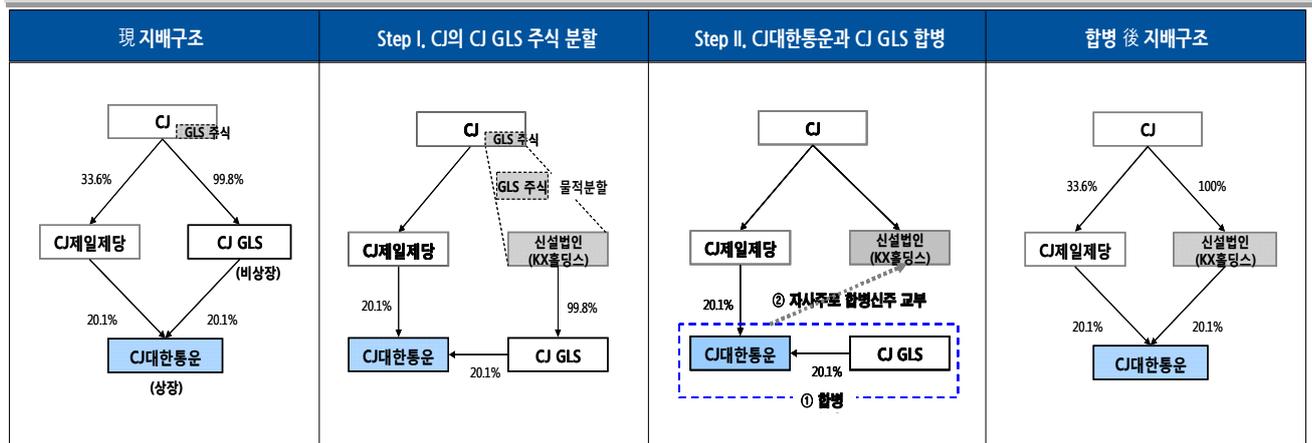
기타 포워딩을 포함한 제3자물류 부문에서도 두 회사는 시너지가 발생하며,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인 ROE 상승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ROE의 구성이,

$$ROE(\text{Return On Equity}) = \text{Asset Turnover} \times \text{Margin} \times \text{Leverage}$$

라고 본다면, 비자산형 업체로서 영업용 자산(운송 장비, 터미널 등)의 상당부분을 아웃소싱에 의존하던 CJ GLS가 CJ대한통운의 자산을 이용하면서 1) **전체적인 자산회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2) **비용이 낮아지면서 마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결국 추가적인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것

그림 1. 합병 구조



자료: CJ대한통운,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Small Cap 박승현 02-768-4194 seunghyeon.park@dwsec.com
 Small Cap 이규선 02-768-3071 gyusun.lee@dwsec.com

제이콘텐트리 (036420)

드라마 흥행에 따른 방송 사업 성장에 주목

Not Rated

목표주가(원,12M)	-
현재주가(13/01/07,원)	4,085
상승여력(%)	-
EPS 성장률(13F,%)	27.1
MKT EPS 성장률(13F,%)	19.9
P/E(13F,x)	12.8
MKT P/E(13F,x)	9.0
KOSDAQ	508.72
시가총액(십억원)	268
발행주식수(백만주)	66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636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
배당수익률(13F,%)	2.4
유동주식비율(%)	66.0
52주 최저가(원)	2,510
52주 최고가(원)	4,770
베타(12M,일간수익률)	0.97
주가변동성(12M daily,%,SD)	3.2
외국인 보유비중(%)	3.5
주요주주	
(주)중앙일보사 외 3인(34.03%)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6.4	17.7	14.4
상대주가	13.6	9.5	5.3
주요사업	멀티플렉스, 매거진, 방송, 문화사업 등 종합 미디어 사업		

중앙일보 계열의 종합 미디어 기업

제이콘텐트리는 1987년에 설립되어 2005년 중앙일보사에 인수됐으며 2011년 중앙 M&B(잡지) 합병, 메가박스-씨너스(영화) 합병을 거쳐 **영화, 잡지, 방송, 문화사업 등을 갖춘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문별 매출 비중은 2012년 기준 멀티플렉스(영화관 사업) 54%, 매거진 16%, 방송 16%, 문화사업 등 기타 14%로 예상된다. 멀티플렉스와 매거진 부문은 안정적인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송 부문은 JTBC 채널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JTBC 드라마 흥행 성공으로 방송 사업 선순환 효과 예상

제이콘텐트리는 드라마하우스(제작), JTBC(방영), QTV(재방영), 제이콘텐트허브(국내외 유통) 등 자회사 및 계열사를 통해 방송 사업의 Value Chain을 수직계열화하고 있다. **드라마 시청률이 높으면 JTBC의 광고 수익 증가, 제이콘텐트리의 유통 수익 증가, 드라마 제작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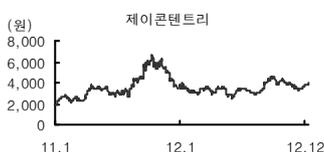
최근 JTBC 주말드라마 '무자식상팔자'의 시청률(전국 유료가구 기준)이 6%를 상회하면서 연 장 방영이 거론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2013년에 드라마하우스는 전염병(안판석 감독) 등 6편 정도의 라인업이 예상된다. 동사의 방송 부문 매출액은 드라마하우스와 제이콘텐트 허브의 성장에 따라 11~13년 각각 309억원, 629억원, 88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방송과 멀티플렉스 사업 호조로 2013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IFRS 연결 기준 2013년 실적은 매출액 4,400억원(YoY +10%), 영업이익 512억원(YoY +18%), 지배주주 순이익 209억원(YoY +27%), 영업이익률 11.6%(YoY +0.8%p)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실적 개선 이유는 1) 방송, 멀티플렉스 실적 개선에 따른 외형 성장, 2) 드라마 콘텐츠 사업 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다. 특히 방송 부문 매출액은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사업부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123	-10	-8.5	-24	-680	10	1	-126.7	-	9.9	14.5
12/11	137	18	12.8	18	306	14	3	40.0	11.3	2.8	22.3
12/12F	402	43	10.8	17	252	61	36	18.8	15.4	2.7	7.4
12/13F	440	51	11.6	21	320	71	43	21.0	12.8	2.5	6.8
12/14F	475	59	12.3	25	386	80	49	21.7	10.6	2.1	6.1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제이콘텐트리,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의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42.7 / 5일 960.4)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334.1 / 5일 1442.4)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운수장비	390.8	-3,256.5	전기전자	-465.7	-995.8	금융업	543.1	1,044.0	운수장비	-1,051.3	-3,767.5
의약품	175.8	272.4	화학	-214.1	526.2	화학	473.8	527.1	전기전자	-696.3	1,580.6
보험업	155.3	164.1	건설업	-122.1	233.7	서비스업	151.5	233.7	음식료	-63.4	196.4
서비스업	117.3	1,067.4	섬유의복	-24.6	-145.3	건설업	121.3	515.0	의약품	-59.4	19.5
은행	68.7	-21.6	증권	-11.2	1,072.6	철강금속	93.7	33.0	보험업	-26.7	-202.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현대차	340.7	-367.5	하나금융지주	-206.2	132.2	하나금융지주	250.6	319.9	삼성전자	-695.3	351.7
한국타이어	137.0	210.5	SK하이닉스	-194.8	-173.8	NHN	205.6	-15.7	현대모비스	-432.7	-1,276.5
삼성화학	98.9	78.1	LG화학	-149.2	-564.4	LG전자	159.9	608.9	기아차	-388.3	-849.3
현대위아	81.1	-866.0	LG전자	-145.2	350.0	OCI	157.8	-234.5	현대차	-237.3	-1,745.2
현대모비스	78.7	-434.4	TIGER 200	-137.4	-203.7	KB금융	153.5	502.2	LG디스플레이	-132.0	-150.0
KODEX레버리지	73.8	558.3	금호석유	-85.4	133.4	호남석유	124.6	309.9	엔씨소프트	-71.3	-144.4
NHN	72.4	-184.1	삼성SDI	-84.1	-313.9	현대중공업	97.1	111.8	한국타이어	-70.3	-300.6
한미약품	65.3	37.9	호남석유	-78.1	87.5	신한지주	94.2	42.0	SK하이닉스	-66.0	532.8
호텔신라	63.7	-246.1	SK이노베이션	-69.1	355.8	LG화학	77.6	563.4	한국항공우주	-59.9	-41.2
기업은행	55.5	-42.4	S-Oil	-63.1	-2.2	삼성전자우	69.3	-416.8	KODEX 인버스	-44.7	49.9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86.5 / 5일 1009.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3.2 / 5일 24.6)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오락.문화	166.5	287.5	인터넷	-112.3	70.9	인터넷	174.5	130.0	금속	-59.7	-60.9
통신방송	49.0	63.9	IT부품	-62.5	132.6	IT부품	8.7	-42.5	제약	-37.5	153.7
반도체	38.8	274.8	금속	-43.0	12.1	통신장비	8.4	27.1	디지털컨텐츠	-26.3	-136.6
제약	38.1	-69.8	음식료.담배	-2.1	27.9	의료.정밀기기	4.7	-9.8	반도체	-19.3	28.0
방송서비스	33.7	35.1	운송장비.부품	-2.0	-71.3	기타	3.3	38.9	오락.문화	-13.4	-119.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57.9	96.7	다음	-112.3	71.1	다음	171.8	131.9	성광벤드	-50.1	-47.3
서울반도체	60.2	132.8	파라다이스	-53.5	78.5	파라다이스	19.2	-60.1	코미팜	-29.8	56.1
에스엠	58.1	91.5	성광벤드	-34.9	-6.2	오스템임플란트	10.6	-3.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8.2	-10.1
CJ E&M	43.9	16.5	멜파스	-29.1	36.9	멜파스	10.1	-1.9	셀트리온	-10.5	82.8
로엔	17.8	15.5	아트라스BX	-16.7	12.4	CJ오쇼핑	7.0	1.5	게임빌	-8.5	-18.0
메디톡스	17.4	21.9	플렉스컴	-15.5	25.3	파트론	6.8	-5.0	네오위즈게임즈	-8.0	-1.4
KG이니시스	17.4	-20.2	인터플렉스	-14.2	-18.1	동서	5.7	24.8	컴투스	-7.3	-84.2
비에이치	16.8	-14.0	네패스	-12.4	39.0	유진테크	5.2	5.8	실리콘웍스	-7.2	-4.9
SK브로드밴드	15.4	28.7	CJ오쇼핑	-10.5	-10.2	제이브이엠	4.4	-0.9	태광	-6.7	-23.5
코오롱생명과학	15.2	5.3	파트론	-9.7	6.6	비아트론	3.8	13.9	매일유업	-6.7	-24.7

※ 본 자료 중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00	39,235.9	LG화학	-7,800.4	현대차	7,326.0	LG전자	-9,886.0
현대차	10,920.9	SK하이닉스	-6,602.6	삼성화재	7,134.8	LG화학	-9,258.9
한국타이어	5,283.9	한국전력	-6,176.8	SK텔레콤	6,869.9	삼성전자	-8,584.2
제일모직	3,800.7	NHN	-6,034.6	KB금융	5,488.2	호남석유	-5,680.8
현대모비스	3,068.2	현대중공업	-5,422.0	현대글로벌비스	5,383.3	GS건설	-4,632.0
삼성화재	2,947.6	S-Oil	-5,328.1	기업은행	4,895.6	기아차	-4,450.8
대한항공	2,459.7	삼성SDI	-5,049.7	신한지주	3,837.3	POSCO	-3,643.6
삼성테크윈	2,065.4	SK이노베이션	-3,887.8	현대위아	3,011.5	현대모비스	-3,603.9
KODEX 인버스	1,955.5	GS	-3,751.1	NHN	2,892.9	SKC	-3,063.4
롯데쇼핑	1,905.1	CJ대한통운	-3,233.8	두산중공업	2,827.3	금호석유	-2,988.4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NHN	1,517.7	SK텔레콤	-4,014.8	POSCO	10,935.7	하나금융지주	-12,441.6
LG화학	1,089.9	SK이노베이션	-3,594.9	GS	9,867.9	SK하이닉스	-6,606.1
S-Oil	760.0	하나금융지주	-2,072.8	현대차	7,283.1	S-Oil	-4,439.2
외환은행	758.5	TIGER 인버스	-1,802.0	한국타이어	6,941.7	LG디스플레이	-4,299.3
현대모비스	686.5	SK하이닉스	-1,001.8	NHN	4,861.4	KODEX 200	-4,189.8
대우증권	439.7	POSCO	-859.8	고려아연	4,684.3	LG화학	-4,087.3
KODEX 200	386.2	KB금융	-857.4	현대위아	4,286.0	삼성전자	-3,235.4
두산인프라코어	349.0	한세실업	-755.8	LG전자	3,522.4	SK이노베이션	-2,868.3
삼성생명	297.9	현대상선	-675.2	KT&G	3,496.6	KODEX 레버리지	-2,472.3
한국가스공사	271.9	OCI	-610.9	현대모비스	2,744.7	금호석유	-2,281.1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현대위아	356.6	8,113.2	SK하이닉스	6,595.1	19,484.2
KODEX 레버리지	1,190.6	7,384.8	TIGER 200	89.6	13,743.2
NHN	20,560.8	7,242.7	SK이노베이션	92.8	6,905.0
호텔신라	1,614.5	6,365.8	LG디스플레이	13,198.2	5,393.7
POSCO	5,442.1	4,889.0	한국항공우주	5,989.1	2,957.4
한국가스공사	1,160.3	3,360.3	한국전력	191.0	2,542.4
GS	2,365.3	2,834.4	기아차	38,832.1	1,760.0
고려아연	4,188.2	2,650.9	CJ대한통운	1,252.7	1,404.0
KB금융	15,347.5	1,990.5	엔씨소프트	7,127.7	699.8
신한지주	9,415.9	960.8	삼성중공업	3,291.2	238.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907.7	성광밴드	-1,958.0	서울반도체	3,567.9	다음	-8,788.5
서울반도체	1,867.3	멜파스	-1,070.6	포스코 ICT	1,452.8	플렉스컴	-1,677.9
SK브로드밴드	1,299.9	파라다이스	-1,044.8	KG이니시스	1,403.5	파라다이스	-1,479.6
나노신소재	1,002.8	CJ E&M	-616.1	컴투스	1,101.0	나노신소재	-1,445.3
옵트론텍	978.1	씨젠	-583.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70.8	성광밴드	-1,041.3
한글과컴퓨터	952.9	태광	-481.2	뷰웍스	663.2	아트라스BX	-737.8
비에이치	652.3	위메이드	-435.7	메디톡스	571.1	엘비세미콘	-553.5
메디톡스	597.0	파트론	-380.7	CJ E&M	550.3	코나아이	-373.6
모두투어	498.9	다음	-293.6	코오롱생명과학	449.1	모두투어	-337.2
솔브레인	426.0	실리콘웍스	-272.6	제이콘텐츠리	404.2	심택	-301.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4.3	다음	-3,415.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105.3	멜파스	-1,184.0
코오롱생명과학	414.8	뷰웍스	-851.0	CJ E&M	2,936.9	네패스	-922.5
CJ E&M	401.9	서울반도체	-253.4	나노신소재	1,037.6	성광밴드	-605.8
아비텍	223.4	아이컴포넌트	-234.0	로엔	870.6	모두투어	-489.0
메디톡스	200.7	제이콘텐츠리	-196.5	플렉스컴	807.2	실리콘웍스	-370.0
이트레이드증권	196.0	플렉스컴	-139.3	씨티씨바이오	779.3	성우하이텍	-368.8
바이오랜드	132.8	CJ오쇼핑	-134.8	테라세미콘	643.5	파라다이스	-333.9
씨젠	123.5	파라다이스	-129.2	서울반도체	621.0	포스코컴텍	-303.9
KG이니시스	100.9	하나마이크론	-127.4	다음	554.1	KH버텍	-214.5
에스에너지	93.1	시그네틱스	-102.1	코오롱생명과학	536.6	태광	-209.2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G이니시스	58.5	1,736.8	성광밴드	5,012.8	3,494.0
코오롱생명과학	87.6	1,522.7	네패스	221.7	1,239.2
테라세미콘	70.6	1,084.7	심택	162.5	884.9
나노신소재	162.2	975.1	신흥기계	118.4	454.4
한글과컴퓨터	171.7	760.7	이라이콤	192.1	420.6
코텍	130.0	618.0	태광	671.5	316.1
셀바이오텍	172.8	458.8	KG모빌리언스	538.1	308.3
한국사이버결제	234.1	417.5	매일유업	670.4	160.0
오스텝임플란트	1,059.4	165.1	실리콘웍스	722.8	127.8
동서	573.6	40.3	셀트리온	1,051.3	99.8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 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3	1306	1309	KSPH3H6S
기준 가격	266.14	268.10	269.45	271.55	1.65
시가	266.12	268.10	269.45	271.55	1.60
고가	266.43	268.75	270.05	271.55	1.60
저가	263.87	266.05	267.85	271.55	1.60
종가	265.97	268.20	269.70	271.55	1.60
전일 대비	-0.17	0.10	0.25	-	-0.05
이른 가격	-	267.38	269.06	270.84	1.68
총 약 정 수 량 *	76,678	240,444	41	-	5
총 약 정 금 액 **	3,112,794	32,161,448	5,515	-	1,338
미 결 제 약 정	-	135247 (19568)	1499 (8)	42 (20)	-
배 당 지 수 ***	2.87% (CD금리)	0.00	0.23	0.35	-
반 응 배 수		1.05	0.86	-	
장 중 평 균 배 이 시 스		2.361			
전 일 대 비		-0.397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 변동폭/일중 현물가격 변동폭, KSPH3H6S : 3월물과 6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배이스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익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 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129,356	46,792	57,483	211	2,478	630	2,259	1,276
	매 도	120,262	49,303	61,960	305	3,615	773	2,748	1,519
	비 중	51.9%	20.0%	24.8%	0.1%	1.3%	0.3%	1.0%	0.6%
순 매 수 누 적	전 일	9,094	-2,511	-4,477	-94	-1,137	-143	-489	-243
	누 적	8,913	2,582	-3,746	-360	-7,114	296	-268	-313
매 매 편 향 강 도		3.64%	-2.61%	-3.75%	-18.22%	-18.66%	-10.19%	-9.77%	-8.69%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PI200	
KOSEF	75	0.28%	105	2,808	0.00%	NAV (ETF-NAV)%	26,923	26,927
KODEX200	15	0.06%	4,449	77,996	19.68%		-0.03%	-0.16%
						T/E	0.00%	0.03%
						설정주수	0	2000
						환매주수	0	900
						상장주수	13250	175600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종가/100	269.15	268.85	266.28	268.20	266.34			
eff.delta	-4.41	-0.88	-0.49	-0.59	-0.12			
diff/basis	1.20%	1.08%	0.12%	2.23	0.37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69	콜평균	0.167	풋평균	0.171	역사적 (5일)	16.5	역사적 (20일)	11.4
월물 행사가격		1301					1302		
		270.0	267.5	265.0	262.5	260.0	267.5	265.0	262.5
Call	가격	0.48	1.23	2.59	4.40	6.55	4.70	6.20	7.80
	전일 대비	-0.10	-0.10	-0.03	-0.05	0.00	-0.20	-0.15	0.00
	내재변동성	16.20	16.70	18.20	19.70	21.90	14.50	15.20	15.70
	거래량	397,199	372,492	261,644	25,875	4,917	2,062	1,247	531
	미결제	41,006	24,866	26,029	12,791	10,672	1,840	1,472	634
Put	가격	4.20	2.38	1.25	0.57	0.26	4.70	3.55	2.75
	전일 대비	-0.10	-0.15	-0.05	-0.02	0.03	-0.25	-0.40	-0.16
	내재변동성	12.90	13.90	15.60	16.50	17.90	12.50	12.70	13.30
	거래량	13,977	98,276	352,151	424,501	271,399	1,283	1,491	2,131
	미결제	8,907	14,528	25,668	27,886	42,909	926	1,143	2,945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612,842	470,029	568,656	1,100	559	204	6,331	100
	매도	596,465	470,005	585,008	1,100	513	479	6,238	60
	비중	36.4%	28.3%	34.8%	0.1%	0.0%	0.0%	0.4%	0.0%
순매수 누적	전일	16,377	24	-16,352	0	46	-275	93	40
	누적	26,882	44,004	-65,419	-310	-1,743	-1,287	-2,160	-2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704,159	449,243	581,496	726	1,353	452	162	7,707
	매도	685,182	454,139	596,803	726	1,391	396	125	6,536
	비중	39.8%	25.9%	33.8%	0.0%	0.1%	0.0%	0.0%	0.4%
순매수 누적	전일	18,977	-4,896	-15,307	0	-38	56	37	1,171
	누적	83,369	2,401	-84,319	200	739	288	-161	-2,517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5,680,169	11,941,966	12,011,045	5,677,315	-	-	-	-
	기타	-	-	-	-	-	-	-	-
	합계	5,680,169	11,941,966	12,011,045	5,677,315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249	0.05	11,426	0.29	501	0.09	27,290	0.69
	비차익	16,313	3.05	638,146	16.08	17,302	3.23	740,024	18.64
	합계	16,562	3.09	649,572	16.36	17,804	3.33	767,314	19.33
베이스스 수준		1.925	1.825	1.725	1.625	1.525	1.425	1.325	1.225
차익성 순매수		-2774	-144	-27	-377	-1792	0	0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1/07 (월)	01/04 (금)	01/03 (목)	01/02 (수)	12/28 (금)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2,011.25	2,011.94	2,019.41	2,031.10	1,997.05	
		5일	2,014.15	2,009.37	2,003.43	1,995.91	1,985.78
	이동평균	20일	1,986.38	1,982.58	1,978.98	1,974.66	1,969.85
		60일	1,939.13	1,938.59	1,938.09	1,937.68	1,937.04
	이격도	20일	101.25	101.48	102.04	102.86	101.38
		60일	103.72	103.78	104.20	104.82	103.10
	거래량		536,219	378,862	491,014	364,079	302,926
	거래대금		40,094.8	47,904.5	60,936.5	44,585.4	32,991.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을율	1.50	1.06	1.37	1.02	0.85	
	거래대금 회전을율	0.34	0.41	0.52	0.38	0.29	
	심리지표	70	80	80	90	80	
	ADR	109.43	108.95	107.13	101.53	96.60	
	이동평균	20일	97.06	95.82	94.56	93.63	91.84
	VR	134.73	187.39	188.38	270.07	253.40	
코스닥시장		01/07 (월)	01/04 (금)	01/03 (목)	01/02 (수)	12/28 (금)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08.72	504.84	499.07	501.61	496.32	
		5일	502.11	498.78	494.37	491.31	486.60
	이동평균	20일	490.36	490.06	489.76	489.78	489.54
		60일	503.75	504.28	504.83	505.44	505.94
	이격도	20일	103.74	103.02	101.90	102.42	101.39
		60일	100.99	100.11	98.86	99.24	98.10
	거래량		416,030	399,804	388,426	342,534	329,013
	거래대금		18,274.3	18,933.0	17,489.4	15,151.0	15,085.8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을율	2.03	1.90	1.85	1.63	1.57	
	거래대금 회전을율	1.64	1.71	1.59	1.37	1.38	
	심리지표	80	80	70	70	50	
	ADR	108.62	105.87	103.35	93.45	90.13	
	이동평균	20일	89.46	88.09	86.88	86.33	85.10
	VR	152.38	112.53	108.44	147.90	106.24	
자금지표		01/07 (월)	01/04 (금)	01/03 (목)	01/02 (수)	12/28 (금)	
국고채 수익률(3년)		2.76	2.74	2.77	2.82	2.82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25	3.23	3.25	3.30	3.29	
원/달러 환율		1,063.70	1,063.60	1,061.50	1,063.50	1,070.60	
CALL금리		2.72	2.72	2.73	2.73	2.72	
주식형(국내)		-	682,408	684,707	687,758	683,189	
주식형(해외)		-	260,484	260,790	260,976	260,684	
채권형		-	470,328	469,048	467,012	468,680	
고객예탁금		-	180,317	181,875	180,522	180,143	
고객예탁금 회전을율		-	37.07	43.12	33.09	26.69	
순수예탁금 증감		-	-4,163	1,472	9,297	-3,589	
미수금		-	1,408	1,232	1,271	1,241	
신용잔고		-	39,328	39,139	39,219	39,297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